

관록이나, 패기나...스포츠동아배 주인은?

임채빈·전원규 주선 주기 이유 불참 대상 최다승 정종진 우승후보 1순위 양승원·정해민도 기량 만만치 않아 김희준·김관희·정재원 등 다크호스

경륜의 올 시즌 네 번째 빅 매치, '제12회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이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명 벨로드롬에서 열린다.

현재 출전이 유력한 선수는 그랑프리 4연패의 대기록을 보유한 정종진, 전반기 돌풍의 주역들로 얼마 전 슈퍼특선반(SS반)에 진출한 양승원과 정해민 등이 있다. 데뷔 후 절정의 기세를 과시 중인 부산의 김희준, 세종의 김관희, 전북의 에이스 최래선도 나쁘지 않다.

다만 랭킹 1위인 임채빈과 4월 대상경주에서 깜짝 우승을 했던 전원규는 대상경주 출전 주선 주기(배분) 등에 따라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시즌 61연승을 기록 중이고 대상경주 무패인 임채빈의 페이스를 볼 순 없지만, 강력한 우승후보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다른 선수들 간의 대결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존심 회복 위해 우승 절실, 정종진

한때는 이름 앞에 '경륜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1인자의 자리를 사실상 임채빈에게 내주었다. 지금까지 네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최근에는 전반기 출전 공백의 영향으로 SS반에서도 물러났다. 그 사이 새로운 얼굴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이번에도 후배들의 공세에 무너진다면 본격적인 하락세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그만큼 정종진에게 이번 대상의 우승 트로피는 절실하다.



2019년 스포츠동아배 대상경륜 결승에서 마지막 전력질주를 하는 선수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리는 올해 경주에서는 경륜 대세였던 정종진의 자존심 회복 등 재미있는 관전포인트들이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하지만 그랑프리 4회 연속 우승과 상금왕, 대상 최다승의 관록은 여전하다. 이번 대회 준비도 누구보다 철저했다. 협공을 도모할 수 있는 수도권에 친분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이점 중 하나다. 우승후보 1순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단, 지나친 중앙압박은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막판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정종진 잡는다" 양승원·정해민의 도전

양승원은 임채빈에게 유일한 1패를 안긴 선수다. 당시 경주를 계기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마침내 SS반까지 진출했다. 양승원은 연대세력 없이는 정상자의 자리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경륜의 불문율을 깰 선수다. 충북지역의 자존심으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해 늘 상대를 긴장시키고 상황에 따른 대응능력 또한 일품인

선수다. 다만 큰 경기 특히 결승에 진출했을 경우에 이번에도 연대세력 부재가 예상되는 만큼 초반 적절한 위치 선정을 통해 체력 부담을 줄이고 막판 임팩트를 확실하게 가져가는 것이 관건이다.

정해민 역시 우승후보 중 한명이다. SS반 진출의 기세를 살려 정종진을 잡고 대상 우승까지 노린다는 기세다. 자타공인 경륜계 대표 스트롱맨으로 파위는 최상급이다. 역시 다양한 전술이 가능해 경쟁자들이 연계를 선호하는 타입이다. 수도권권을 비롯한 타 지역 선수들과도 두루 친분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장점이 있다. 단, 큰 경기 때 실수를 잦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무시 못할 다크호스들

최근 절정의 기세를 김희준, 김관희 역시 우승을 노릴 만한 다크호스들이다. 찬

스에 강한 정재원, 정재원 등도 강자들이 초반 점점을 벌일 때 내·외선의 틈을 파고들며 2, 3차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이 결승에 진출하면 특히 중고배당 마니아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라이프는 우승 선수에게 쏟아지지만 팬들의 배팅을 즐겁게 하는 것은 2, 3차 선수들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경륜 예상치 최강경륜 박창현 발행인은 "정종진이 우승후보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 도전세력들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 그동안 임채빈 중심의 후착 찾기가 성행하던 이전 대상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이라며 "전원규처럼 그 주 컨디션이 좋거나 기습 능력을 가진 선수, 상황에 따라 마크 전환에 능한 테크니션들의 반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6·7일 스피드온 온라인 발매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6일과 7일, 광명스피드온에서 온라인 발매 1주년 기념 '스피드-업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한다. 먼저 이 기간 광명스피드온 고객에게 무

알콜 맥주를 제공한다. 2층 스피드라운지에는 스피드온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륜경주를 즐길 수 있게 대형 화면과 200석 규모의 좌석, 식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사장을 운영한다. 행사장에서는 당일 경륜 경주를 연속으로 적중(3~5연속 이상)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베타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경주 막간 게임 이벤트, 바텐더 카테일쇼 등의 행사도 있다. 행사장 입구에서 스피드온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미사리 경쟁장에서는 10일, 11일 방문고객 대상으로 사은품(빙과류) 교환권 2000장(하루 1000장씩 선착순)을 배포한다. 11일 오후 12시30분부터는 경정 왕중왕전 결승진출자 6명의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경륜선수와 함께하는 재능·물품 기부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7월 27일 충북 청주시 늘푸른아동원에서 '경륜선수와 함께하는 자전거 재능 드림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경륜 훈련지인 대전지부와 미원지부 선수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40대와 안전도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자전거 전달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경륜대전, 미원지부 소속선수 8명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즐길 수 있도록 감승도 진행했다. 자전거의 각종 기능, 안전도 착용요령, 자전거 타고 내리기, 안전수칙, 안전한 라이딩 방법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했다.

경정 유망주 4총사 주목

염광호, 26회차 84.8배 깜짝 우승
한준희·김지영·손유정도 인상적

하반기 레이스가 시작된 미사리 경정장은 여전히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김종민의 독주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철, 조성인, 김효현, 배해민 같은 강자들도 이렇잖을 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전반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레이스 판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신

인급 선수들이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할 선수로는 고배당 메이커로 자리 잡은 염광호다. 기습적인 휘감기 승부로 최근 상당한 재미를 보고 있다. 26회차 6월 30일 목요일 11경주 6코스에서 기습적인 휘감기 승부로 깜짝 우승을 차지해 쌍승식 84.8배라는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주 펼쳐진 수요일 4경주에서도 아웃코스 휘감기 승부를 펼쳐 비록 2차이였지만 12.7배라는 준수한 배당을 터트렸다. 염광호는 모터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코스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휘감기 공략에 나서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과감한 스타트 승부를 하면서도 2018년 데뷔 이후 단 한

번만 플라이 위반을 했을 정도로 신인급 중에 스타트에 탁월한 재능을 자랑한다. 동기생 한준희의 활약도 못지않다. 본격적으로 여름철로 접어들며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26회차 수요일 7경주를 시작으로 29회차 목요일 3경주까지 5연승(우승 3회, 준우승 2회)했다. 운영 능력과 선화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지금은 6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코스에서 고르게 입상하고 있다. 코스별 다양한 작전구사가 가능하다. 올 시즌 벌써 7승째인 김지영은 '제2의 안지민'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차세대 여성 강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타트는 약간

기복이 있지만 빈틈을 파고드는 찌르기 능력이 탁월하다. 직선에서 빠르게 자세를 잡는 능력도 좋아 혼전 편성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다. 전반기 좋은 활약으로 동기생들 중 유일하게 A2급을 배경반야 15기 대표 선수로 자리 잡았다. 16기 막내 중에서는 손유정의 활약이 인상적인 모습이다. 시즌 우승 3회, 준우승 3회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입상을 최근에 기록할 정도로 확실한 상승세다. 스타트나 경주 운영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지만 가벼운 몸무게를 바탕으로 직선에서 감성을 보여 모터가 받쳐준다면 주목할 선수다. 김재범 기자

골프

박민지 탈환이나, 유해란 수성이냐...KLPGA 대상 포인트 '전쟁'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내일부터 티샷
대상 포인트 28점차...1위 싸움 관심

일주일의 짧은 휴식기를 마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일부터 열린시안 제주 CC(파72)에서 펼쳐지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9억 원·우승상금 1억6200만 원)를 시작으로 2022시즌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16개 대회가 진행된 전반기의 '퀵'은 박민지(24)였다. 작년에도 6승을 거두며 대상·상금왕을 싹쓸이했던 '2021년 대세'는 올해도 전반기에만 홀로 3승을 챙기며 2년 연속 투어 지배자로 떠올랐다. 전반기 마감 시점에 다승 1위, 상금 1위(6억5051만 원)를 유지했지만 시즌 MVP격인 대상 포인트에서는 유해란(21·420점)에게 28점 뒤진 392점으로 2위에 랭크됐다. 박민지가 프랑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



박민지 유해란

십 출전을 위해 전반기 마지막 두 대회를 건너 뛰었고, 유해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순위를 뒤집었다.

첫 해의 원정길에 나서 6연패 공동 37위를 기록했던 박민지는 "코스가 까다로운 해외 투어에 다녀오며 숏게임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돌아왔다. "타이를 경쟁이 더욱 치열

해졌는데 신경이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좋다"며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민지와 유해란의 대상 1위 싸움은 시즌 중반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던 유해란도 박민지 못지않게 준수한 성적을 자랑한다. 박민지는 전반기 11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8번 이름을 올렸고, 유해란은 14개 대회에서 10회 톱10에 진입했다. 박민지가 톱10 피니시율 1위(72.7%), 유해란이 2위(71.4286)에 랭크돼 있을 정도로 둘 모두 꾸준하면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박민지는 하반기 첫 대회에서 대상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유해란이 지키기에 성공할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지켜보아야 할 중요 포인트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PGA 투어, 상금 늘리고 대회 일정·방식 손질

2022~2023 일정 발표...LIV 견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돈 폭탄을 앞세운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LIV 골프)에 대응하기 위해 상금 규모를 키우고, 대회 일정과 출전권 획득 방식 등을 손질했다.

PGA 투어는 2일(한국시간) 44개의 정규 시즌 대회와 3개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PO) 등 총 47개 대회로 치러지는 2022~2023 시즌 일정을 발표했다. 시즌 총상금 4억1500만 달러(5428억 원) 규모로 펼쳐지는 새 시즌은 다음 달 15일 포터넷 챔피언십으로 시작한다.

8개 대회의 총상금을 1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인상하고, 상위권 선수들을 위해 총 1억4500만 달러의 보너스 상금을 페덱스컵 포인트와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layer Impact Program)을 통해 지급키로 했다.

페덱스컵 PO 1차전 세인트 주드 클래식 125명이 출전하던 것을 다음 시즌부터는 70명

으로 제한하고, 2차전 BMW 챔피언십에는 50명, 3차전 투어 챔피언십에는 30명만 출전할 수 있다. 가을 시리즈는 PO 진출에 실패한 70위 밖 선수들을 위한 대회로 열리고 시즌 상위 50명이 컷타락 없이 출전하는 '인터내셔널 시리즈'도 신설한다.

2024년부터 투어가 1년 단위 일정으로 바뀌면서 출전권 획득 방법에도 변화가 켜졌다. PO 1차전에 출전한 70명 선수만 이듬해 1월 시작하는 2024시즌의 풀 시드를 받고, 그 밖의 선수들은 2023년 가을 시즌에 출전해 추가 포인트를 획득해야 한다.

PGA 투어 제이 모나한 커미셔너는 "팬들이 페덱스 컵 정규 시즌과 페덱스 컵 PO에서 더 많은 경쟁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2024년에 다시 1년 단위의 일정으로 전환하면서 혁신적인 여러 변화를 가을 시즌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